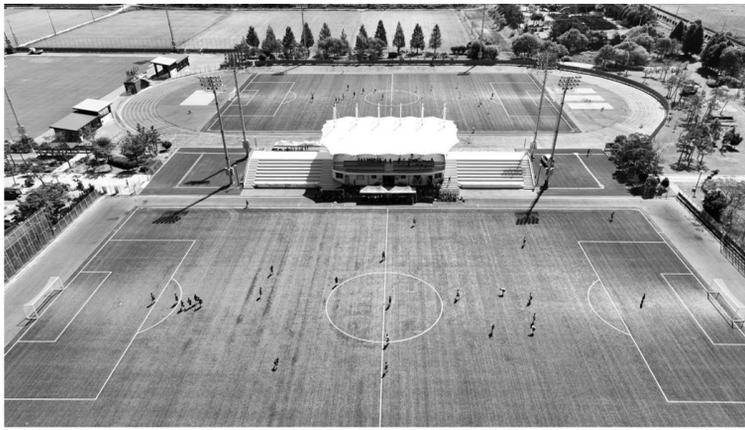


# 보성군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본격화

### 150억원 투입 3만2226㎡ 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 완료 축구장·풋살장 확장...2027년 개장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이 본격화에 올라 전남권 스포츠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벌교스포츠센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성군이 지난 11일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농지전용허가를 최종 완료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벌교읍 장양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3만2226㎡ 규모의 종합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축구장 2면(천연잔디 1, 인조잔디 1), 풋살장 2면, 주자장 등이 새롭게 조성되면, 기존의 축구장 3면을 포함해 총 5면의 축구장을 확보하며, 보성군은 명실상부한 전남권 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게 된다.

또한, 해당 부지에 전지훈련센터도 조성돼 있어 체계적인 유소년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전국 스포츠팀의 전지훈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부지 확보 지연으로 장기간 담보 상태에 놓였었다. 이에 군은 2024년 상반기 부지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해 6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대상 부지를 확보했다.

이러 2024년 10월 전남도 농정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해제(안)가장기간계류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 4차례의 보완 절차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최종 해제를 이끌었다.

앞으로 보성군은 군의회 군관리계획 시설 변경 심의를 거쳐 2025년 10월경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주민과 전국 축구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벌교종합스포츠시설 조성 사업은 보성군이 전남권은 물론 전국적인 스포츠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규모의 유소년, 성인 축구대회 유치를 통해 체류형 스포츠 관광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상권과 숙박업, 음식점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초등생 자녀 맞벌이 50가구 광양시 도시락 배달비 지원

광양시가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우려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심 도시락 배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중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의 식사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락은 방학 기간 급식지원 위탁업체인 '사니어들럽 운영 엄마손밥상 2호점'에서 영양 식단에 따라 준비해 제공하며, 비용은 신청 가구가 부담한다. 광양시가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각 가정의 문앞까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시는 총 11회에 걸쳐 1회당 2,000~3,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6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가구다. 신청은 전용 링크(<https://naver.me/5dAeNgos>)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돌봄팀(061-797-2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해남군 계곡면 임준호 농가 하미멜론. <해남군 제공>

## 하미 멜론 해남서 조기재배 성공 첫 출하

해남군이 옛 중국 황제 진상품으로 알려진 하미멜론의 조기 재배에 성공해 출하에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신소득 작목인 하미멜론 조기출하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7월초부터 멜론 수확을 시작했다.

하미 멜론은 중국 신장 위구르 하미 지역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예로부터 황제에게 진상하던 멜론으로 알려져 있다. 과육 밀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황제의 멜론'이라고도 불린다. 외관은 타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과육이 주황색을 띠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신소득작목 발굴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자체 실

증시험을 통해 하미멜론 품종을 도입, 올해 처음 실시된 시범사업이다.

군은 향후 새로운 멜론 품종별 특성과 소비자 기호를 분석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 고품질 멜론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남산 하미 멜론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로컬푸드와 생산자 직접 판매를 통해 출하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하미멜론은 고온기에도 당도가 높은 고품질 멜론으로 시식 평가 결과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새 품종 도입과 재배 기술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교육장·경찰서장은?

### 일선 지자체 직급 상향 논란 상대적 박탈감 등 부담 하소연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취지로 10만 인구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두고 공직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 등에 따르면 현재 서기관급 예우를 받는 일선 교육장(장학관)과 경찰서장(총경)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자체장(군수)과 상대하는 일이 많은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직급이 상향된 부단체장(부군수)과 교섭 등에 부담감을 느끼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단체장 권한과 위상만 높여 결국 지자체만 거대화해 균형이 맞지 않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2024년부터 2025년 1월 1일 자를 기해 전국 10만 인구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자치조직권이 강화되고 그동안 어려웠던 지휘통솔권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군 단위 임명직인 교육장과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도소장 등의 기관장들이 부단체장(부이사관)보다 직급이 낮은 서기관급으로 배치 자존감을 저하해 공직자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한 임명직 서기관급 기관장은 "부단체장 직급보다 못한 예우를 받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자체만의 사기 진작 차원을 넘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역 정서를 고려해 동등하게 부단체장 직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 인사지침 상 부단체장의 근무연한은 한 곳에 1년 6개월 주기로 도와 군간 교류인사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다 보니, 최근 장흥군에서 근무하다 도로 전입된 이 모 부단체장(부이사관)이 서기관으로 강등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부단체장은 1년 6개월 순환근무제에서 올해 7월부터 2년연한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HD현대삼호가 최근 대불공단에서 '광양항 자동화부두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 강제절단식'을 갖고 있다. <HD현대삼호 제공>

## HD현대삼호, 광양항 항만크레인 제작 착수

### 2059억 투입 2029년 1월 8기 납품

HD현대삼호가 전남 광양항 자동화부두에 설치할 항만 크레인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HD현대삼호는 최근 대불공단에서 회사 임직원들을 비롯해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항 자동화부두 컨테이너크레인 제작 강제절단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총사업비 205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9년 1월 납품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에서는 자동화부두 3-2단계 4선석에 더블 트롤리 안벽 크레인(DTQC, Double Trolley Quay Crane) 8기가 설치된다.

DTQC는 컨테이너 선적과 하역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싱글 트롤리보다 한 단계 진화한 무인 자동화 크레인이다.

바다 쪽으로 약 68m까지 뚫을 뺄 수 있고, 컨테이너를 최대 53m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다.

또 최대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갑판 위에서 최대 12단 적재된 컨테이너를 시간당 35개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크레인은 세계 주요 허브항만에서 사용하는 최고 사양에 준하는 성능으로 초대형 선박의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HD현대삼호의 DTQC는 지난 202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며 국제적으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납기 내에 모든 공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